

고려인삼산업 활성화 모색

진안홍삼연구소, 축제 기간 중 고려인삼포럼 추계학술대회 개최

진안홍삼연구소가 홍삼축제 기간 중인 지난 20일 '고려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안산악초타운 전시관에서 고려인삼포럼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홍삼연구소와 (사)고려인삼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고려인삼포럼 회원, 학계전문가, 연구기관 및 가공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7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송규용 교수(충남대)는 'Rg1, Rb1, Rg3와 같

이 잘 알려진 성분 뿐만 아니라 Rg4, Rg6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희귀진세노사이드의 다양한 생리활성에 대해서 말했다.

또한 박경훈 연구원(농촌진흥청)의 '인삼의 유기농재배 확대방안', 박종대 고려인삼포럼회장의 '백삼 등의 특이성분과 효능 재조명', 진안홍삼연구소 최광대 박사의 '암 발생 억제 및 치유에 대한 고려인삼의 기능성'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김성봉 부장

은 "플라즈마는 재배, 가공,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인삼연구에도 플라즈마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이항로 군수는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 신뢰 확보 문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삼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숙박업소 등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주 적상산 풍경

무주에서 가을여행 할인·이벤트로 즐겨요

21일~11월5일 유료 관광지 입장료1 숙박·음식점 등 할인... 스태프 투어도

무주군은 가을 여행주간(10.21.~11.5.)을 맞아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숙박업소 등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을 여행주간에는 태권도원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은 입장료 20%, 와인동굴은 입장료 중 5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지를 비롯한 자세한 할인 혜택 등이 안내돼 있는 할인 쿠폰북은 무주군 관광안내소에 비치돼 있다.

스태프 투어 '무주애틀리'도 운영한다. '무주애틀리'는 무주군이 추천하는 관광 명소 5곳 이상에서 스태프를 받아오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무주군 관광안내소·무주읍 터미널 앞)하는 것으로, 추천 명소는 최북미술관과 향교, 머투와인동굴, 적상산사고, 반디랜드, 태권도원,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도라, 구천동관광특구 안내소 등 무주의 가을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인 곳들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제3회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도 개최되는 만큼 무주에서 가을여행을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가을이 갖는 아름다운 무주도 둘러보고 고랭지에서 정성으로 안전하게 키운 반딧불 농·특산물도 꼭 한번 맛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25일 저녁 6시 30분부터는 10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전시실 관람(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정기 회원전·가을소풍) 행사가 마련되며 같은 날 7시부터는 테코 양초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예와 캘리그래피가 만나다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군민의 날 작품 전시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탄신 제443주년 의암주논개 축제 및 제50회 군민의 날을 맞이해 한누리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와 캘리그래피 회원들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한누리전당 전시실에서 초가를 정취와 잘 어울리는 묵향의 서예와 캘리그래피 작품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캘리그래피란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자신만의 글씨체를 창조해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 세련되고 감각적인 글씨체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회는 장수 캘리그래피

동호회와 느티나무 동호회에서 양초, 갑, 예코백, 액자 등 다양하게 접목해 독특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한 작품들과 서예 동호회원들의 3년 이상 갈고닦은 실력으로 탐과 노력이 묻어나는 수준 높은 작품 등 120여점을 선보였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서예교실과 캘리그래피 수강생 등의 우수한 작품이 전시돼 이번 전시회에 많은 군민들이 관람하여 초가를 묵향을 느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덕유산 정상 '천상(天上)의 소리' 음악회 성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1일, 덕유산 정상부 일원에서 '천상의 소리'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 및 탐방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덕유산국립공원의 핵심사업인 '덕유 然(연)인(인) 행복 네트워크 형성' 일환으로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자연·문화가 어우러진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천상의 소리' 음악회에는 대금연주

(문성재), 판소리(김영희), 재즈(더블루이어즈), 하모니카(이의근) 공연 등 6개의 공연팀이 덕유산 정상부라는 이색적인 장소에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선사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허영범 소장은 "이번 공연은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서식지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쇠퇴해 가는 아픔을 알리고,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 교육 '큰나무 캠프' 실시

사회복지법인인삼동회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최근 무주종합복지관 소강당에서 다문화 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육 '큰나무 캠프'를 실시했다.

올해 아버지 교육은 특별히 다문화이해교육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아버지들을 향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함께 가족 내의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나무로서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 형식으로 기획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문 전문가도 강사와 관계항상 집단 상담 강사를 초빙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놀면서 느끼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안전한국훈련 30일 실시

무주군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에는 다중밀집시설 대탈출훈련을 가정한 상황에서 무주군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토론기반형 훈련을 진행하며, 31일에는 종합 현장훈련을 통해 기관·단체별 임무와 역할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지역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마련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토대로 화재대피 현장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11월 1일에는 민방위 지역특성과 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지진 대피 훈련이 진행된다. 재난 시 부족 자원 발생에 대비한 기관 간 재난관리지원 공동 활용시스템 운영 훈련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서, 교양아카데미 실시

장수경찰서는 23일 오전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양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형사사건을 통해 본 삶과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김정호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무도훈련을 실시해 체포술 습득과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준호 서장은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양아카데미는 24일까지 진행되며 24일은 역사문화 여행 속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조상열 인문학 박사가 진행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시장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